

실용음악 보컬교육에서의 임프로비제이션(Improvisation)에 대한 교수자 인식 FGI 연구

김은영(상명대학교 박사과정)*

박재록(상명대학교 교수)**

1. 서론
 - 1.1. 연구 배경
 - 1.2. 연구에서의 주요 개념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 2.2. 연구 절차
 - 2.3. FGI문항
 - 2.4. 결과 분석과 타당성의 확보
3. 연구 결과
 - 3.1.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 3.2. 교육적 요인에 대한 인식
 - 3.3. 교육방안
 - 3.4. 교수자 역량
 - 3.5. 교육지원
4. 결론 및 논의

* 제1저자

** 교신저자

본 연구는 재즈의 주요소로 지칭되는 임프로비제이션에 대한 실용음악 보컬교육으로의 수용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논의를 시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를 위하여 현재 실용음악과에서 보컬 전공실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 8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을 도출하였다.

임프로비제이션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는 ‘보컬 테크닉의 극대화’, ‘아티스트로의 성장 가능성’, ‘음악 내적 기준과 틀의 마련’, ‘새로운 음악적 시각 제시’, ‘이론과 실기의 융합’으로 특정되었다. 임프로비제이션 수용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은 ‘음악적 표현의 극대화 및 다양화’, ‘풍부한 표현력과 음악적 시각의 확장’, ‘생각의 확장을 통한 음악적 전달력 상승’, ‘창의성의 개발’, ‘청음 능력의 향상’ 요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가져올 보컬교육의 긍정적 효과로는 가창의 ‘다양성’, ‘창의성’의 확장 효과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임프로비제이션 중심 보컬전공실기 교수법의 방법 및 방식에 대한 인식은 재즈음악보다 대중음악, 팝 음악, 광고음악 까지 다양한 음악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에 대한 확대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한 인식은 보컬 전공실기 수업 외에도 실용음악과 교육 전반으로 확대,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임프로비제이션 보컬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수자의 능력에 대한 인식은 ‘악기 연주 능력’, ‘청음 능력’, ‘화성학적 지식’, ‘장르별 특화된 식견’, ‘시청각적 구현 능력’, ‘긍정적인 에너지’, ‘확고한 커리큘럼 구축 및 실현’, ‘지속적인 교육적 아이디어 탐구’ 등이 주요 요건으로 거론되었다.

본 연구는 실용음악 보컬교육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의 주요 도구로써 임프로비제이션을 대입해 보고, 그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배경 및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이 향후 관련 논의의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핵심어: 임프로비제이션, 즉흥연주, 재즈, 보컬교육, FGI

1. 서론

1.1. 연구 배경

한국 실용음악교육에 재즈가 도입되고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예술대학에 최초의 실용음악과가 개설되던 그때부터이다. 서울예술대학의 국악과 야간(2부)에서 임시 개설되면서 태동한 한국 실용음악과는 그 시작부터 재즈와 국악의 결합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실제로 당시 ‘재즈 1세대’로 불리는 길옥윤, 정성조 등이 교수자로 임용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후 한충완, 정원영, 김광민, 한상원 등 이른바 ‘유학 1세대’로 지칭되는 이들이 한국 실용음악과에 대거 임용되었다. 재즈 1세대를 포함한 유학 1세대 대부분이 미국의 버클리 음대 등에서 재즈를 주로 공부하고 돌아온 자들로, 이들은 한국 실용음악교육 내 재즈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는 것에 기여한다. 이들 중 다수가(3분의 2 이상) 한국 실용음악과 채용되면서 재즈 중심의 커리큘럼은 더욱 고착화 되기에 이른다.

단시간에 전국 다수의 교육기관에서 실용음악과를 개설하면서 실용음악과의 개체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와는 달리 실질적 학과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 구축 등의 준비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많은 학교에서 이미 개설된 기존 실용음악과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여 수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무차별적 수용은 결과적으로 ‘재즈의 교육적 편중’ 양상을 야기하였다. 실용음악과의 재즈 편중 양상은 다수의 학자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실용음악과의 음악적 범위가 워낙 광범위

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전공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하나의 장르에 편중된 대학교육의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안용성 2007: 77)는 의견이나, “팝 음악이나 그 외의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재즈 중심의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이정선 2010: 149)는 등의 내용이다.

그나마 최근 대중음악 관련 음악 교육학적 성과들이 점차 재즈의 ‘즉흥연주’, ‘음악적 의사소통 역량’, ‘음악의 이주와 문화 변이’와 같은 요인들로 확대되며 다양한 지향점들을 시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김책 2018: 169)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지향하려는 주요 내용이나 논점과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서 재즈의 교육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공감과 대화, 협력 증진을 위한 동력이자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즈의 주요소로 지칭되는 ‘임프로비제이션(Improvisation)’의 경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렌더링 하는 것이 경의를 표하는 것임과 동시에 창조의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¹⁾

본 연구는 재즈를 대표하는 주요소인 임프로비제이션이 현 실용음악 보컬교육 내의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임프로비제이션의 교육적 수용 가능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논의를 시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보컬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교육적 선택의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식홈페이지, www.unesco.co.kr

폭을 넓히는 것, 나아가 관련 논의의 확장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연구를 위하여 현재 실용음악과에서 보컬 전공 실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이후 FGI))를 적용하여 관련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용음악 보컬교육에서 임프로비제이션의 실제와 교육적 경험 등을 몸소 체험해온 이들의 인식 고찰은 임프로비제이션의 보컬교육적 의미와 상호 연관성, 보컬교육으로의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어떠한 해석과 접근의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에서의 주요 개념

(1) 임프로비제이션의 개념과 유형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임프로비제이션은 뜻 그대로 ‘즉흥연주(이하 임프로비제이션으로 통칭)’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연주자에 의해 직접적이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주를 뜻한다.²⁾ 임프로비제이션은 기존의 음악을 그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적 창작 행위는 통상적으로 작곡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연주 중심의 임프로비제이션과는 대칭되는 의미로 인식되고는 한다.

임프로비제이션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는 한다. 마크 C. 그리들리(1994)는 임프로비제이션을 작곡과 연주를 동시에 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리허설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하거나 혹은 미리 악보의 내용을 연습하지 않고 연

2)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1996), 음악대사전, p.1313.

주에 임하는 것으로 보았다.³⁾ 나아가 재즈연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언급되는 자유스러움, 생생함(Vitality)이 바로 이와 같은 임프로비제이션의 행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마크 C. 그리들리 1994: 14-15).

요하임 E. 베렌트(2012)는 임프로비제이션과 작곡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며, 이를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작곡의 경우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이나 연주력, 테크닉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내용을 재현할 수 있지만, 임프로비제이션은 오로지 연주자 본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연주자의 음악적, 정신적, 정서적 상황에 따른 개인적 표현만이 임프로비제이션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요하임 E. 베렌트 2012: 286-287).

전윤한(2016)의 경우 임프로비제이션이 감상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요인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 ‘일정한 테마’ 사이의 자유롭게 연주되는 부분, 둘째, 악보가 없이 연주하는 모든 것, 셋째, 실제 연주에서는 악보를 공유하지 않고도 테마나, 연주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연주자 상호 간 공감을 통해 순간순간의 편곡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전윤한 2016: 34).

이처럼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등장하는 것은 작곡과 임프로비제이션 간 음악 창작 경계의 모호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프로비제이션을 일반적 연주행위의 하나로 볼 것인지, 작곡행위로 볼 것인지, 혹은 연주를 겸비한 창작행위로 볼 것인지, 즉흥성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어떠

3) 이와 비슷한 개념의 연주방식으로 애드립(Ad libitum), 페이크(Fake), 라이드(Ride), 잼(Jam) 등의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한 의도에서 사용되는지와 같은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주대창, 2004: 504).

임프로비제이션의 유형은 크게 전체적 임프로비제이션과 부분적 임프로비제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체적 임프로비제이션이란 악곡 전체를 즉흥적으로 창작하고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부분적 임프로비제이션은 기존 악곡에 대해 즉흥적으로 장식을 가하거나 성부를 추가하거나 삽입구를 넣은 것을 의미한다.⁴⁾

보컬 임프로비제이션의 경우 ‘스캇 싱잉(Scat singing)’과 ‘멜로디 임프로비제이션(Melody improvisation)’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다운 2020: 14). 스캇 싱잉의 경우 전체적 임프로비제이션으로, 멜로디 임프로비제이션은 부분적 임프로비제이션의 유형과 유사성을 갖는다. 스캇 싱잉이 악곡 전체 혹은 그 이상의 범위를 넘나들며 연주하는 행태를 의미한다면, 멜로디 임프로비제이션의 경우 작곡가가 제시한 주제부의 멜로디를 변화시키는 행태를 의미한다.⁵⁾

스캇 싱잉은 정해진 가사 없이 프레이징의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높은음에서 가창하기 편한 발음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등의 포괄적 가창 행태를 뜻한다. 아울러 악기 연주에서의 임프로비제이션과는 달리 다양한 발음의 구사를 통해 다채로운 악기의 음색을 모방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이다운 2020: 20). 반면 멜로디 임프로비제이션은 보컬리스트의 성향에 따라 작곡된 멜로디를 그대로 부르거나 음정과 리듬에 변화를 주는 경우, 가사의 내용을 상황에 맞추어 바꾸어 부르거나 추임새 혹은 가사를 더 추가하여 부르는 등의 다양한 가창 행태로 나타난다(William R. Bauer 2001:

4) 파플러음악용어사전.

5) 멜로디 임프로비제이션은 멜로디 페이크(Melody fake), 멜로디 임벨리시먼트(Melody embellishment)로 지칭되기도 한다.

303-323). 따라서 스캇 싱잉의 경우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멜로디 임프로비제이션의 경우 협의(狹義)의 개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임프로비제이션의 교육적 의의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의 중요성은 일찍이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등 다수 음악교육자들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이들은 학습자가 지닌 자연적 능력, 음악적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고 자연스럽게 자발적 창의성이나 호기심을 외현화 시켜주는 일련의 음악학습과정으로서의 임프로비제이션 경험을 강조한다. 이들 교수법에서 임프로비제이션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학습자에게 잠재된 예술적 본능, 상상력, 창의적 표현 욕구에 대한 본능적 성향이나 충동을 표현하게 해주는 통로를 제공해 준다는 것, 둘째, 예술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리들이나 패턴, 개념, 요소, 형식 등에 관해 학습한 것을 반복, 재연, 적용, 강화, 응용, 종합하는 통합적, 전체적 학습경험으로써 주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방금주 2002: 70).

실제 교육을 통한 임프로비제이션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긍정적 요인을 유발하는 것에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프로비제이션이 학생들의 음악적 주요소(멜로디, 리듬, 화성)에 대한 감득이나 이론적 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의 경험이 학생들의 창의적 음악 표현능력 향상, 성취감, 만족감을 높이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점,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음악 분석, 감상, 연주 수업과는 달리 임프로비제이션 창작의 과정은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 등이다(이연경 2001: 37, 엄지은 2014: 32, 이지은 2009: 126).

미국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의 Limb, C. 교수는 연구를 통해 재즈 연주자들이 즉흥연주를 할 때 클래식 연주자들과는 다르게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이라고 알려진 뇌의 기능이 몹시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황덕호, 2006: 99). 이것은 자신이 틀리게 연주하는지 아닌지의 검열이나 인식이 낮아진다는 의미로, 재즈 연주자들은 연주 시 훈련으로 인한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비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이 실험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즉흥연주가 가능하며 경험과 모방, 연습을 통한 과정을 거친 후 기량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최경화 2016: 7).

임프로비제이션은 다양한 음악적 사고를 확장시키면서 넓혀가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임프로비제이션 연주자들은 자신이 취하는 반복적인 연주패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생각할 시간’의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Wigram, T. 2006: 201). 한국 대중음악계 주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실용음악과 보컬교육에서의 임프로비제이션 교육 수행은 학생들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수용자의 창의적 음악 표현능력과 음악적 사고를 확장 시키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임프로비제이션 경험의 제공은 물론 모방 및 구체적 연습 방안의 제시, 독창적 교육과정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실용음악과에서 보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컬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임프로비제이션의 중요성과 교육적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재 실용음악과에서 보컬 전공실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컬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 방법인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표적집단면접이란 특정 이슈에 대해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참여자들이 모여 상호 토론 과정을 거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논의하여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성적 조사 방법이다(성희원 2019: 294).

면접 참여 대상자는 한국 실용음악과에서 보컬 ‘전공실기⁶⁾’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 8명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 실용음악과에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보유한 자들이다. 참여자 모두 본 연구의 중심인 임프로비제이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집단면담에 동의의사를 밝힌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컬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한정하였으며, 설문 내용의 편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학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6) 전공실기는 실용음악과의 필수 교육과목 중 하나로 학생과 교수자가 1대 1 방식을 중심으로 실기교육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표 1〉 참여 교수자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대	교육경력	학력
교수자A	여	30대	13년	박사
교수자B	여	40대	9년	석사
교수자C	남	40대	6년	석사
교수자D	여	30대	4년	학사
교수자E	여	40대	14년	석사
교수자F	여	40대	12년	석사
교수자G	남	40대	5년	석사
교수자H	여	30대	14년	박사

2.2. 연구 절차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21년 1월 20일, 원래는 대면을 예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면접 시스템인 줌(Zoom)을 활용하여 8명의 보컬교수자들과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개설한 링크를 대상자인 보컬교수자에게 전송하여 약속한 시간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는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되, 참여한 교수자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도중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관련 질문을 유도하기도 하였으나, 최대한 질문 외의 개입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인터뷰는 총 3시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일대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강하였다. 면담의 전 과정은 녹취한 이후 전사를 통해 내용을 분석하였다.

2.3. FGI 문항

표적집단면접의 문항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1, 2는 보컬교육에서의 임프로비제이션이 갖는 가치와 의미, 수용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질문이며, 문항 3, 4, 5는 임프로비제이션 중심 보컬교육을 위해 필요한 음악적 요건과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요인 및 효과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6, 7은 임프로비제이션 중심 보컬 전공실기 교수법 및 그 외 관련 확대 교육의 방안, 문항 8은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교수자의 역량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마지막 문항 9는 실질적 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였다. 아래 <표 2>는 FGI 문항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 FGI 문항 및 내용

질문	문항	내용
교육 필요성	1	임프로비제이션의 보컬교육적 가치와 의미
	2	임프로비제이션 수용의 필요성 및 역할
교육적 요인	3	임프로비제이션을 위한 음악적 요건
	4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을 통한 향상 요인
	5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의 긍정적 효과
교육 방안	6	임프로비제이션 중심 보컬전공실기 교수법
	7	임프로비제이션 확대 교육의 방안
교수자 역량	8	임프로비제이션 보컬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수자의 능력
교육 지원	9	임프로비제이션 보컬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의견

2.4. 결과 분석과 타당성의 확보

FGI의 모든 과정은 녹취한 이후 전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 중 몇몇 문항의 경우 해당 요인에 대한 빈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문항별 성격과 내용에 따른 참여자의 동의 여부 및 정도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FGI 응답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자 중심 내용 분석을 근거로, 검토자 1인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3. 연구 결과

FGI 질문영역별 각 문항에 대한 참여 교수자의 응답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3.1. 보컬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문항 1. 임프로비제이션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

문항 1은 한국 실용음악과의 보컬교육 내 임프로비제이션의 교육적 위치와 교육적 가치, 교육적 의미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을 물어 보았다. 참여자들은 한국 실용음악교육에서의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은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교육적 위치의 경우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국 실용음악과 중 소수의 학교에서만 즉

홍연주를 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다수의 참여자가 그마저도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쉽게 폐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3>은 임프로비제이션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임프로비제이션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

응답 내용	응답 빈도
보컬 테크닉의 극대화	1
아티스트로의 성장 가능성	4
음악 내적 기준과 틀 마련	1
새로운 음악적 시각 제시	1
이론과 실기의 융합	1
합계	8

임프로비제이션이 교육적 가치와 의미는 ‘보컬 테크닉의 극대화’, ‘아티스트로의 성장 가능성’, ‘음악 내적 기준과 틀의 마련’, ‘새로운 음악적 시각 제시’, ‘이론과 실기의 융합’ 5가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교수자 A : “임프로비제이션은 보컬의 제한적인 역할을 넘어 보컬 테크닉의 극대화된 가능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컬이 하나의 악기로서 다른 악기들과 소통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이 바로 임프로비제이션이라 생각합니다.”

교수자 D : “임프로비제이션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와 요소를 교육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자 E : “임프로비제이션은 학생들, 즉 학습자들의 음악 내적인 틀을 만들어 줍니다. 전체적인 음악적 형상을 일관적으로 지속시키고 형성해 나가게끔 내적 틀을 생성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 밖에도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은 ‘보컬의 곡에 대한 해석 능력 향상’, ‘음악적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배우게 됨으로써 보컬리스트를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와 동일한 입장과 위치에서 상호 이해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음악적 순발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용이하다는 등의 의견을 언급하였다.

문항 2. 임프로비제이션 수용 필요성 및 역할

문항 2는 보컬교육 내 임프로비제이션 수용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표 4〉 임프로비제이션 보컬교육의 필요성

응답 내용	응답 빈도
필요하다	5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1
필요하지 않다	2
합계	8

참여자 대부분의 교수자가 보컬교육에서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의 수용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이 제시한 보컬교육에서의 임프로비제이션의 역할은 ‘음악적 표현의 극대화 및 다양화’, ‘풍부

한 표현력과 음악적 시각의 확장', '생각의 확장을 통한 음악적 전달력 상승', '창의성의 개발', '청음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수자 B: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은 보컬 전공자 자신의 생각을 노래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상승될 수 있게 합니다. 때문에 임프로비제이션은 보컬 교육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요인입니다.”

교수자 F: “임프로비제이션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보컬리스트가 악기 연주자와의 동등한 위치 혹은 밴드 리더로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 얻는 자신감을 이후 음악적 구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음악적 추구를 위한 보컬리스트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 바로 임프로비제이션이며, 음악에 대한 이해와 가창 구현 깊이 상승을 이끌어 낼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보컬교육에서의 수용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함께 제시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의 경우 두 명의 교수자가 임프로비제이션에 대한 경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재즈학과’가 아닌 ‘실용음악과’에서 굳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교육적 요인에 대한 인식

문항 3.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의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

문항 3은 보컬전공자가 실제 임프로비제이션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음악적 요건에 대하여 물었다. 해당 문항에서는 복수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표 5〉 임프로비제이션 구현의 학생 요건

응답 내용	응답 빈도
이론적 지식	5
청음력	2
작곡 능력	1
악기 연주력	2
독창성	1
반복훈련	1
음악의 3요소(멜로디, 리듬, 화성)	2
딕션 구사능력	1
의지와 욕구	1
합계	16

실제적인 임프로비제이션 구현을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 ‘청음력’, ‘작곡 능력’, ‘악기 연주력’, ‘독창성’, ‘반복훈련’, ‘음악의 3요소(멜로디, 리듬, 화성)에 대한 이해’, ‘딕션 구사능력’, ‘의지와 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 A : “좋은 귀와 들은 그 소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자 H : “음악에 대한 이론적 기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작곡 능력, 자신만의 색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교수자들은 임프로비제이션 구현을 위한 요건으로 ‘음악 이론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피력하였다. 그 외 이론적 지식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 ‘음악 3요소(멜로디, 리듬, 화성)에 대한 이해’, 나아가 ‘청음 능력’과 최소한의 ‘악기 연주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항 4.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을 통한 향상 요인

문항 4는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보컬교육에서 어떠한 향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다.

교수자 B : “보컬이 아닌 부분들을 듣는 경험을 자주 하게 만들어 보컬전공자의 음감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임프로비제이션은 보컬리스트에게 작곡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작곡 능력의 향상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교수자 F : “합수 시 다른 악기들이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이해하게 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앙상블의 리더로, 나아가 더 좋은 사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수자 G : “악기 연주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감각적으로만 움직였던 보컬리스트만의 음악이 보다 체계화되고 정리할 수 있는혜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자 H :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음악 내적인 틀이 잡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자들은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보컬전공자에게 ‘음악에 대한 이해력’ 및 ‘곡에 대한 해석 능력 향상’, ‘작곡 능력 향상’ 등의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로 보았다. 그에 따른 영향은 곧 실용음악과에서 운영하는 주요 커리큘럼 중 하나인 ‘앙상블’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악기 연주자와 동등한 입장, 위치에서 소통하고 나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보컬전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표현해낼 수 있는 내적인 틀이 구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함께 하였다.

문항 5.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의 긍정적 효과

문항 5는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가져올 보컬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다. 문항 4가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에 대한 향상요인을 묻는 질문이었다면, 문항 5의 경우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한 개념의 질문이다.

교수자 A : “보컬리스트의 역할에서 다양성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악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고, 단순히 곡을 가창하는 것을 넘어 이해와 해석에 대한 확장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보컬 트레이닝의 효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수자 D : “창의성 향상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언어를 가장 직관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이 바로 임프로비제이션이며, 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컬리스트 본인조차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자 G : “단순히 싱어로서의 개념이 아닌 예술인으로서의 입지를 확장, 구축하는 것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컬교육에서의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은 보컬전공자 가창에서의 ‘다양성’, ‘창의성’ 등의 확장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심도 있는 보

컬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보컬’을 넘어 확장된 개념으로의 ‘음악인’, ‘예술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게 하여 다른 악기 연주자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과 위치에서 연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보컬 임프로비제이션 교육 방안에 관한 논의

문항 6. 임프로비제이션 중심 보컬전공실기 교수법

문항 6은 임프로비제이션 중심 보컬전공실기 교수법에 대한 방법 및 방식에 대하여 물었다. 해당 질문에서는 보컬전공실기 수업에서 개인별 교수자가 경험하고 제공한 교수법에 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수자 A : “간단한 코드 뱀프(Vamp)⁷⁾나 블루스 폼, 스탠더드 곡이나 가요, 팝의 익숙한 곡을 통해 한마디 안에 어울리는 음을 한 음, 두음, 세음 찾아보거나 리듬만으로 연습해 보는 등의 감각적 방식의 접근을 중심으로 합니다.”

교수자 D : “대중가요나 팝의 멜로디를 보컬리제(Vocaliser)⁸⁾로 바꾸어 가창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스캇의 발음에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7) 뱀프는 특정 멜로디 라인이 표시할 수 없는 심플한 리듬 패턴을 위주로 구성된 부분 및 그 연주를 가리킨다. 보통 2~4마디를 단위로 반복되며 멜로디를 도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피아노를 주체로 한 즉흥적 반주(뱀핑)에서 유래한다. <파퓰러 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8) 모음으로 발성, 노래하는 방식을 의미함.

교수자 E : “우리가 언어를 처음 배울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간단한 음률의 카피 혹은 바리에이션(Variation)⁹⁾을 통해서 일을 뗄 수 있게 하고, 심리적 유도(자유, 자신감)을 인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자 F : “넓고 얇은 임프로비제이션의 경우 가요의 루프 중 짧은 두 마디, 혹은 네 마디 패턴에 직접 쓴 가사로 노래를 불러보게 유도합니다. 혹은 시를 제시해 주고 그 내용을 활용해 가창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교수자 G : “음악을 제시하고 노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 부분을 다 노래로 불러볼 수 있도록 합니다. 화성 악기의 경우 탭 노트를 귀에 들리는 대로 가창하게 하고, 이후 이론적 틀 안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들을 학생 스스로 인지하고 정리해 나아가도록 교육합니다.”

교수자 H : “광고음악에 나왔던 멜로디 라인을 모방하고 따라서 가창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보컬 교수자 대부분이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을 위하여 재즈음악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음악이나 팝 음악, 광고음악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4마디 정도의 작은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음률의 모방, 멜로디 바리에이션, 멜로디 보컬리제 등과 기악의 멜로디를 비슷한 소리의 덕션으로 구사하여 가창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음악적 자유에 대한 인식의 확장 및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임프로비제이션 구현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변주곡이라 불리며, 변주를 악곡 구성의 기본 원리로 하여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함.

문항 7.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의 확대 방안

문항 7은 전공실기 수업 외 보컬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실용음악과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중 어떠한 교육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다. 교육적 영역은 보컬전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과에 한정하였다.

교수자 A : “재즈음악, 혹은 실용음악교육에만 국한하지 않고 예술성 향상이 필요한 수업 전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뮤지션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자 B : “임프로비제이션이 작은 단위의 작곡 혹은 편곡기법과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실용음악과에서 운영하는 작곡이나 편곡 수업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자 C :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리듬 연구수업, 보컬 테크닉, 시창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업 모두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작곡 수업에 적용되었을 때 무엇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자 F : “목소리로 하는 음악적 표현은 보컬전공 뿐만 아니라 연주 전공자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신체적 표현을 요하는 타 전공과의 융합과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자 G : “실용음악과 내 리듬 관련 수업이나 음악을 몸으로 표현해 내는 수업들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자 H : “실용음악과 내 음악 실기수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컬 교수자 대부분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보컬 전공실기 수업 외 실용음악과 교육 전반에 확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보컬전공자를 넘어 실용음악과 내 전공 모두에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작곡’, ‘편곡’, ‘리듬’, ‘시창’ 수업 등으로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기 중심 수업 외에도 뮤지션으로써 가져야 할 마음가짐, 예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의 심적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함께 하였다.

3.4. 교수자 역량

문항 8. 임프로비제이션 보컬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수자의 능력

문항 8은 임프로비제이션 보컬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수자의 능력은 무엇일지에 대하여 물었다. 해당 문항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6〉 임프로비제이션 교육 실현을 위한 교수자 요건

응답 내용	응답 빈도
악기 연주력	2
청음력	1
화성학적 지식	1
장르별 특화된 식견	1
시청각적 구현력	2
긍정 에너지	1
확고한 커리큘럼 및 실현력	1
교육적 아이디어 탐구	1
기타	2
합계	12

설문 결과 앞서 제시한 <표 5> 임프로비제이션 구현의 학생 요건에서 도출된 내용과 같은 ‘청음력’, ‘악기 연주력’의 요인이 중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 ‘화성학적 지식’, ‘장르별 특화된 식견’, ‘시청각적 구현력’, ‘긍정 에너지’, ‘확고한 커리큘럼 및 실현력’, ‘지속적인 교육적 아이디어의 탐구’ 등 <표 5>의 내용과는 별개로 도출된 내용들이 다수 있었다. 타 의견으로는 ‘실러블 훈련에 대한 교수 능력’, ‘독창적 표현력’, ‘악기로서의 보컬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이해’, ‘피포머로서의 능력’, ‘서포터로서의 능력’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특히 ‘장르별 특화된 식견’의 경우, 앞서 설명한 문항 6. 임프로비제이션 중심 보컬전공실기 교수법의 내용 중 다수의 교수자가 재즈음악이 아닌 대중음악, 팝 음악, 광고음악 등을 활용하여 보컬교육 내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필수 주요 요건으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3.5. 보컬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을 위한 구체적 지원에 관한 논의

문항 9. 임프로비제이션 보컬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의견

문항 9는 학교에서의 지원 혹은 그 외 관련 기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 및 요인 등에 대한 질문이다.

교수자 B : “기존 실용음악과의 교육과정에는 임프로비제이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컬만을 위한 ‘보컬 앙상블’ 수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수자 C : “실용음악과에서 운영하는 교과 대부분이 실전에 적합한 내용

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수업은 수업이고 실전은 실전이니까요.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하는 뮤지션과 교수자가 함께하는 특강 수업의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수자 D : “보컬은 다른 악기들처럼 음악 내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음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과목들이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학 수업의 경우도 ‘보컬 화성학’으로 분리하고, 보컬과 싱어송라이터 전공을 통합하여 악기로서의 보컬의 개념이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교수자 F : “현재의 실용음악과에는 보컬에 특화된 커리큘럼, 코디네이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자끼리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가 마련되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수자 G : “실용음악과 내 앙상블 수업의 경우 보컬교수자가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보컬전공자의 경우 수업 내내 코멘트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컬교수자가 앙상블 수업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자 H : “학과 차원에서의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안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의 경우 ‘실제적 교과목의 개설’, 보컬만을 위한 ‘보컬 앙상블 수업의 확대’, ‘뮤지션과 교수진이 함께하는 특강 수업 유치’, ‘리스닝 세션과 같이 다양한 음악을 소개해 주는 과목의 개설’, ‘음을 시각화, 이미지화할 수 있는 교과목 개설’, ‘보컬 화성학 분리’, ‘보컬과 싱어송라이터 전공의 융합’, ‘교수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마련’, ‘보컬교수자의 앙상블 참여 필수’ 등의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교외의 경우 ‘음악적 사고의 확장을 위한 공연 관람의 기회

제공 및 경제적 지원’, ‘알렉산더 테크닉(Alexander Technique)¹⁰⁾ 수업의 경험 제공’, ‘다양한 파트의 악기(보컬 포함)를 서로 바꾸어 경험해 볼 수 있는 음악캠프 개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실용음악과에서 보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에 대한 다각적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실용음악 보컬교육 내 임프로비제이션의 교육적 위치와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교육적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심층 논의를 수행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현재 실용음악과에서 보컬 전공실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으며,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참여 교수자들의 임프로비제이션의 보컬교육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 참여 교수자 다수가 실용음악 교육에서의 임프로비제이션 교육 환경과 커리큘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의 미비에 따라 교육적 위치 또한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매우 소수의 학교에서 교과과정 내 임프로비제이션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교육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쉽게 폐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프로비제이션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는 ‘보컬 테크닉의 극대화’,

10) 알렉산더 테크닉은 습관화된 동작이나 생활습관을 변화시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무용이론사전>

‘아티스트로의 성장 가능성’, ‘음악 내적 기준과 틀의 마련’, ‘새로운 음악적 시각 제시’, ‘이론과 실기의 융합’ 요인을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외 ‘보컬의 곡에 대한 해석 능력 향상’, ‘음악적 대화와 소통의 방법 숙지’, ‘음악적 순발력 향상’ 등에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참여 교수자들의 임프로비제이션 수용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총 8명의 참여자 중 6명이 보컬교육 내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2명의 교수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긍정적 의견을 보인 교수자의 경우 ‘음악적 표현의 극대화 및 다양화’, ‘풍부한 표현력과 음악적 시각의 확장’, ‘생각의 확장을 통한 음악적 전달력 상승’, ‘창의성의 개발’, ‘청음 능력의 향상’ 요인에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반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교수자의 경우 보컬 전공자에게 있어서 임프로비제이션에 대한 경험을 필요하나 굳이 학과 내 교육프로그램으로 꼭 운영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임프로비제이션을 위한 음악적 요인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수자들은 학생들의 실제적 임프로비제이션 구현을 위한 음악적 요인으로 ‘이론적 지식 함양’, ‘청음 능력’, ‘악기연주 능력’, ‘독창성’, ‘반복 훈련’, ‘음악의 3요소에 대한 이해’, ‘딕션 구사 능력’, ‘의지와 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임프로비제이션에 따른 교육적 요인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교육적 요인의 경우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음악에 대한 이해력’, ‘곡에 대한 해석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 보컬전공자가 악기 전공자와 동등한 입장과 위치에서 소통하고, 그를 넘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학생 스스로 능동적인 음악 표현능력을 위한 내적 틀을 구축하는 것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섯째,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가져올 보컬교육의 긍정적 효과로는 가창의 ‘다양성’, ‘창의성’의 확장 효과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를 통해 심도 있는 보컬트레이닝 실현, 예술인으로서의 입지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여섯째, 임프로비제이션 중심 보컬전공실기 교수법의 방법 및 방식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참여 보컬 교수자 대부분이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을 위해 재즈음악보다 대중음악, 팝 음악, 나아가 광고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또한 전곡을 활용하기보다는 2~4마디 정도의 작은 단위를 중심으로 ‘음률의 모방’, ‘멜로디 바リエ이션’, ‘멜로디 보컬리제’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그 외 악기의 멜로디를 가창으로 구현하도록 하거나 음악적 인식 확장(자유)을 위해 심적 동기부여 및 지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에 대한 확대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교수자 대부분이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이 보컬전공실기 수업 외에도 실용음악과 교육 전반으로 확대,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작곡’, ‘편곡’, ‘리듬’, ‘시창’ 수업으로의 확대를 지향하며, 음악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요건 등 심적 교육으로의 확장을 함께 시사하였다.

여덟째, 임프로비제이션 보컬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수자의 능력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악기 연주 능력’, ‘청음 능력’, ‘화성학적 지식’, ‘장르별 특화된 식견’, ‘시청각적 구현 능력’, ‘긍정적인 에너지’, ‘확고한 커리큘럼 구축 및 실현’, ‘지속적인 교육적 아이디어 탐구’ 등이 주요 요건으로 거론되

었다. 그 외에도 ‘실러블 훈련에 대한 교수 능력’, ‘독창적 표현력’, ‘악기로서의 보컬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이해’, ‘피포머로서의 능력’, ‘서포터로서의 능력’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아홉째, 임프로비제이션 보컬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경우 ‘실제적 교과목의 개설’, ‘보컬만을 위한 보컬 앙상블 수업의 확대’, ‘뮤지션과 교수진이 함께하는 특강 수업 유치’, ‘리스닝 세션과 같이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는 과목의 개설’, ‘음을 시각화, 이미지화할 수 있는 교과목 개설’, ‘보컬 화성학 분리 운영’, ‘보컬과 싱어송라이터 전공의 통합’, ‘교수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마련’, ‘보컬교수자의 앙상블 참여 필수’의 내용들이 다. 교외의 경우 ‘음악적 사고의 확장을 위한 공연 관람 기회 제공 및 지원’, ‘알렉산더 테크닉 수업의 경험 제공’, ‘다양한 파트의 악기(보컬 포함)를 서로 바꾸어 경험해 볼 수 있는 음악캠프 개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임프로비제이션 교육에 대한 실용음악 보컬교육 내의 위치와 역할 등에 대한 심층 고찰을 통해 향후 보컬교육의 다양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육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의 주요 도구로써 임프로비제이션을 대입해 보고, 그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배경 및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이 향후 관련 논의의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마크 C. 그리들리. 이정현 역. 1994 「재즈총론」, 삼호출판사: 14-15.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 1996.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313.
요하임 E. 베렌트. 한중현 역. 2012 「재즈북(Das Jazzbuch)」, 자음과모음: 286-287.
Wigram, T. 이상우 역. 2004 「Improvisation:Methods and Teaching Method - 즉흥연주 - 음악치료 임상전문가, 교육자 및 학생들을 위한 치료 방법과 기술」, 학지사: 201.
William R. Bauer. 2001. *Scat Singing: A Timbral and Phonemic Analysis*. in *Current Musicology*. 303-323.

2. 학회지 논문

- 김책. 2018. 「변화하는 대중음악 교육 환경에 있어 한국 재즈학의 위치와 의미론에 관한 성찰」 『대중음악』 22, 한국대중음악학회: 167-194.
방금주. 2002. 「현대의 음악교육에 있어 즉흥연주」 『음악교육』 2, 한국유초등음악교육학회: 65-89.
성희원. 2019. 「표적 집단 면접법을 활용한 소셜 커머스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평가 및 사용 행동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2),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89-304.
이연경. 2001.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 유형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21, 한국음악교육학회: 95-136.
주대창. 2004. 「즉흥연주」 『음악과 민족』 28, 민족음악학회: 503-513.

3. 학위 논문

- 안용성. 2007. 「국내·외 실용음악과 교과과정 연구 - 실용음악 관련 학과의 커리큘럼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 엄지은. 2015. 「재즈음악의 특징을 활용한 즉흥연주 학습지도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 이다운. 2020. 「악기 숙련도가 재즈보컬리스트의 즉흥연주에 미치는 영향」. 추계예술대학교.
- 이정선. 2010. 「한국 대학 실용음악교육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이지은. 2009. 「재즈의 특징적 음악 요소를 활용한 즉흥연주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 전윤한. 2016. 「키스 자렛(Keith Jarrett)의 임프로비제이션(Improvisation) 분석을 통해 본 현대 재즈 위상에 대한 고찰」. 상명대학교.
- 최경화. 2016. 「발레수업반주를 위한 즉흥연주법 연구」. 국민대학교.

4. 신문 및 잡지 기사

- 황덕호.. <즉흥연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월간샘터, 2016, Vol.553, 98-99.

5. 기타

무용이론사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식홈페이지, www.unesco.co.kr.

파퓰러음악용어사전.

파퓰러음악용어사전&클래식음악용어사전.

Abstract

A Study on Instructor Perception FGI on Improvisation in Applied Music Vocal Education.

Kim, Eun Young · Park, Jae Rock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depth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main elements of jazz to Applied music vocal education. To this end, eight professors in charge of vocals majoring in Applied music were interviewed for group interviews (FGI) to draw the following understanding.

The educational values and meanings of improvisation were identified as 'maximizing vocal techniques', 'potential growth as an artist', 'constructing standards and frameworks within music', 'presenting new musical perspectives', and 'merging theory and practical skills'. The need and role of improvisation acceptance are helpful in maximizing and diversifying musical expression, expanding rich expression and musical vision, increasing musical communication, developing creativity, and improving listening ability.

The positive effect of improvisation education on vocal education is the expansion of 'diversity' and 'creativity' of singing. According to a survey, the method and method of teaching vocals mainly in improvisation are more diverse than jazz music, pop music, and advertising music. He emphasized that the possibility and perception of improvisation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and applied to Applied music and education in addition to vocals. The main requirements of the professor's ability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of musical instruments, listening ability, harmonics knowledge, special knowledge by genre, audiovisual implementation ability, positive energy, strong curriculum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This study introduces improvisation as the main tool for expanding choice in Applied music vocal education, and aims to lay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foundation for exploring its possibilities. It is hoped that the contents derived from this study will be of value as basic data for future discussions.

Key words : Improvisation, improvisation, jazz, vocal education, FGI.

논문 투고일: 2021년 10월 20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1년 11월 09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11일

